

HD현대일렉트릭, 벌크 전력기자재 공급… 유럽 진출 ‘청신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입찰 기회
친환경 고압차단기 수주 협력도
“유럽 특화 친환경 전력기기 개발”

HD현대일렉트릭이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시장 진출에 이어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며 유럽 전력기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노르웨이의 데이터·통신 인프라 전문 기업 벌크 인프라스트럭처(Bulk Infrastructure)와 데이터센터용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일렉트릭은 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추진 중인



HD현대일렉트릭 전력영업부부장 양재철 전무(오른쪽)와 벌크 인프라스트럭처 토르비온 모에 최고사업개발책임자가 데이터센터용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전력기자재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나아가 친환경 고압차단기 수주를 위한 양사 간 협력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일렉트릭 전력영업부부장 양재철 전무와 벌크 인프라스트럭처 토르비온 모에(Torbjørn Moe)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벌크 인프라스트럭처(Bulk Infrastructure)는 현재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총 5곳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운영하는 노르웨이 베네슬라(Vennesla) 소재 대형 데이터센터에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유럽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약 70TWh(테라와트시)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IEA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연평균 약 15%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력 소비 증가율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에 한걸음 가까워졌다”며 “스위스, 헝가리 등 현지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 특화된 친환경 전력기기 개발에 집중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그룹 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미 현지 설비 확충을 통해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촉발된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에 기민하게 대응한 덕분이다. 북미 매출 확대와 선별적 수주 전략이 맞물리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4% 늘어난 2182억 원, 영업이익률은 21.5%를 기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전자, 스마트코티지 ‘ZEB플러스’ 인증

국내 사전 제작 건축물 최초 인증
에너지 효율성·전기 안전성 기준 제시

LG전자가 자사의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전기 안전성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9일 LG전자에 따르면, LG 스마트코티지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 등급인 ‘ZEB 플러스’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모든 사전 제작(프리패브) 건축물 가운데 최초 사례다.

ZEB 인증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 건축물에 부여된다. LG 스마트코티지는 에너지 자립률이 1등급 기준인 100%를 넘는 수준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 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LG 스마트코티지는 LG전자의 인공



LG 스마트코티지 전경. /LG전자

지능(AI) 기반 고효율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친환경 주택이다. 주택 내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자가 전력만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LG전자는 안전성 기준 확립에도 나섰다. 최근 전북 김제 스마트코티지 현장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

OU)을 체결했다.

양측은 공동으로 ‘미리 안심 인증제’를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전기 배선, 콘센트 등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해 설치 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미리 안심 인증제’를 LG 스마트코티지에 첫 적용하고, 향후 모듈러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내외 시장 전망도 밝다. 한국철강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30년까지 최대 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2029년 약 19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LG전자는 전북 김제에 위치한 스마트코티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오픈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공개

서남아 테크 세미나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등 선보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비스포크 인공지능(AI) 가전의 핵심 기술을 선보이며 서남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인도 구르가온에서 ‘2025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고, 프리미엄 AI 가전 라인업과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비전을 소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제품은 ▲9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AI 기능이 강화된 상냉동·하냉장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세탁·건조 일체형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이다. 모두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AI 기능과 연결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스포크 AI 냉장고’는 ▲스마트 기반 조작 ▲빅스비 음성 제어 ▲스마트싱스 연동 ▲에너지 절감 모드 ▲보안 대시보드 등 기능이 고도화됐다.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은 생활 패턴에 따라 에어컨과 선풍기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맞춤 냉방’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스마트싱스 기반 가전 연결을 통해 누구나 ▲쉽게(Easy)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



인도 구르가온에서 열린 삼성전자 서남아 테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스마트싱스의 연결 경험에 대한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며(Save) ▲가족을 돌보며(Care)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Secured)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이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굿슬립’ 모드로 전환되고, 스마트조명은 자동으로 꺼진다.

이외에도 ▲집안 기기를 3D로 시각화해 제어할 수 있는 ‘맵뷰’ ▲AI가 세탁물의 무게와 종류를 분석해 자동으로 최적 코스를 설정하는 ‘AI 맞춤 코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AI 절약 모드’ 등도 주목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중남미, 동남아에 이어 서남아까지 테크 세미나를 확대하며 비스포크 AI 가전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혜민 기자

수입차업체,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서비스 개선

테슬라 ‘V4 슈퍼차저’ 국내 첫 설치
벤츠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 투자
BMW 연말까지 충전기 3000기 목표

국내 수입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V4 슈퍼차저’를 가평휴게소(양방향)에 설치했다. V4슈퍼차저는 테슬라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 충전기로 국내에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코리아는 “기존에 운영한 V3 슈퍼차저보다 하드웨어 구조, 확장성 면에서 진일보한 플랫폼”이라며 “특정 차량에 300kW 이상의 충전을 지원하고 더 긴 충전 케이블을 적용해 테슬라가 아닌 차량과의 호환성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충전 케이블 길이는 약 3m에 달하며 향후 V4 캐비닛이 출시되면 최대 출력 500kW까지 지원할 전망이다.

가평휴게소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유일한 휴게소이자 국내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곳으로, V4 슈퍼차저가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차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테슬라코리아는 기대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벤츠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자체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 확대와 투자를 위한 법인을 최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는 지난 4월 한국에 ‘메르세데스 벤츠 에이치피씨(HPC) 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 관

련 투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인이다.

벤츠는 북미와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HP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HPC는 벤츠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자체 초고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투자로 수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BMW는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적극적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23년 ‘차징 넥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약 2400기의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30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한 ‘ESG 차징 스테이션’도 도입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퓨얼셀, 바이오가스 수소연료전지 개발

“연료 개질 기술 고도화해 나갈 것”

두산퓨얼셀은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모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개발해 온 이 모델은 생활하수, 분뇨 등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를 발전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에 직접 투입하

거나, 천연가스(NG)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면 모두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가능하도록 연료 개질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고객 맞춤형 수소연료전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